

WFB 대회사

세계불교도우의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한국불교를 대표하여 여러분의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회 참여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90년 세계불교도우의회를 한국에서 개최한 이후 불교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야흐로 ‘불교’는 동양을 대표하는 종교로, 서양의 정신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사상적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이자 사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WFB한국대회가 세계정신문화 변화의 기폭제가 되어, 불교가 전 세계인의 사상적 대안으로 논의되고, 인류에게 회향하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을 종지로 하고 있으며, 간화선 수행이라는 수승한 수행법과 간경, 염불, 주력 등의 수행법을 포용한 회통불교의 성격을 지닌 천년의 불교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본 대회의 주제인 ‘21세기 불교생태 환경사상과 수행’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사찰과 수행자의 일상이 얼마만큼 자연생태와 상호보완적이며 함께 호흡하여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국과 회원국 간의 수행 환경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호간 깊은 이해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세계불교도간의 이해와 수행의 교류를 위해 개최되는 WFB한국대회의 성공적인 회향을 위해 국가와 세대, 그리고 인종을 넘어선 우의의 자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상호 탐구하는 자리,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의 자리로 만들어가도록 준비

해 왔습니다. 한국불교의 아름다운 전통과 그만큼이나 깊고 넓은 한국인의 ‘정’을 느끼고 마음속 깊이 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WFB에 참석한 사부대중 모두가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대한 공동의 목적과 실천의 의무에 대한 자각을 통해 한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 세계인에게 두루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발원합니다.

다시한번 WFB한국대회에 참석하신 회장님과 지부대표,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국대회가 여러분의 수행정진과 불법홍포에 한층 도움이 되는 만남으로 기억하는 성공적인 대회이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WFB한국대회 명예 대회장

자 승